

## 연구 업적과 소통 능력으로 연구자 자신을 대변한다 뉴사텔 대학 교수 임용, 민병규 동문

지난 1월 KAIST 경영대학이 국내 풀타임 MBA 중 최초로 파이낸셜타임스(FT)가 선정한 '2011 글로벌 100대 MBA' 랭킹에 진입한 쾌거에 이어 또 다른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작년 KAIST 경영대학 박사과정을 마치고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초빙연구원으로 활동 중이던 민병규 동문(경영공학 박사 2010년 졸업, 지도 교수: 김동석)이 졸업생 중 최초, 그리고 최연소로 유럽권 대학인 스위스의 뉴사텔 대학(University of Neuchâtel)에 임용이 확정된 것이다. 곧 출국을 앞둔 민병규 동문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스위스 명문 뉴사텔 대학에 임용 확정

“무엇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계속 연구자로서의 커리어를 밟을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또 제 작은 성취가 학교의 명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니 더 기분이 좋네요.” 민병규 동문은 학사 과정을 시작으로 석, 박사 과정을 모두 경영공학 전공에 올린 진정한 KAIST 경영대학인이라 할 수 있다.

이번에 민병규 동문이 임용된 뉴사텔 대학은 스위스의 뉴사텔 주에 위치한 명문 주립대로 스위스의 또 다른 명문대학교인 제네바 대학, 로잔 대학과 함께 금융 전공 공동 MBA를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대학이다. 민병규 동문은 안정적인 연구 환경과 든든한 리서치 펀드를 뉴사텔 대학을 선택한 이유로 손꼽았다. 또한 그와 깊은 인연을 갖고 있는 대학이기도 하다. “재미있게도 뉴사텔 대학이 제 지도교수님이신 김동석 교수님의 지도교수님이자 Journal of Finance의 에디터를 10년 넘게 하신, 재무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Rene Stulz 교수님이 졸업한 학교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임용이 확정된 후 Rene Stulz

교수님께 말씀 드렸더니 Grandchild(제가 제자의 제자라서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가 자신의 모교로 가게 되었다며 흐뭇해하셨습니다.”

### 연구와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적극 개발해야

민병규 동문은 거의 졸업과 동시에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에 자신의 논문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다른 두 개의 논문도 각각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와 Journal of Financial Market에 2nd round revision 상태에 있다. 또한 박사 과정에 있을 때에도 유명 해외 학회에서 자신의 연구를 여러 번 발표하는 등 차근차근 자신의 앞길을 준비해왔다. 그에게 해외 대학 임용을 준비하고 있는 후배들을 위한 조언을 부탁했다. “두 가지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탐 저널 게재로 대변될 수 있는 연구 역량, 둘째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입니다. 퍼블리케이션의 경우 이전에 해외 대학에 임용되신 선배님들을 보더라도 졸업 전에 이미 유명 저널에 논문이 게재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스킬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1년 동안 초빙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많이 느낀 부분이었

습니다. 특별히 우리 학교는 공대 배경의 학생들이 많이 있어 이런 부분이 많이 약한데 자신을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으려면 학교에 있는 동안 이런 부분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궁극적 목표는 한국 자본시장의 발전

성공적으로 학계에 첫 발을 내디딘 민병규 동문이 향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했다. “졸업을 한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우선 향후 10년간은 열심히 학문과 연구에 정진해 연구자로서의 명성을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제 연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국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껏 한국 자본 시장이 외국 자본에 의해 피해를 당할 때마다 속이 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KAIST 경영대학 구성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없는지 물었다. “KAIST 경영대학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큰 세상을 향해 발전해 나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LI**

류성한 기자 hans@business.kaist.ac.kr